



연해주 최남단 도시 크라스키노에 있는 단지동맹비

## 은혜의 집 기도편지(6)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창세기 46장 5절)

### - 러시아 상황

전 세계가 델타변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곳 러시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동안 내리막 추세였던 일일 확진자의 추세가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여, 이제 24,000명 정도의 신규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델타변이 이후로는 길에서도 종종 마스크를 쓴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옆 도시인 우스리스크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코로나에 많이



최근의 러시아 코로나 상황



고 양영근 선교사님

걸리셨습니다. 다행히, 다들 잘 회복되셨지만, 이곳 블라디에도 확산될까 하여, 한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삼가했습니다. 종종 교회 지체들 중에도 코로나에 걸리셔서 한동안 교회출석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낯선 이곳에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한 평생 수고하셨던 선생님이 지난 달에 소천 하셨습니다. 러시아가 개방된 후인 1990년대에 들어오셔서, 근 30년간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곳의 선생님들은 65세 이상인 1세대 선생님들과 이곳에 정착한지 10년 내외인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선생님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도 1세대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있으시지만, 사역을 이어받을 현지인 사역자들을 찾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평생 일구신 사역지를 현지인 사역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쉽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계신 많은 1세대 선생님들은 자신의 사역지를 선뜻 현지인 사역자에게 물려주고, 복음이 더 열악한 곳으로 이동하셔서 또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 모습이

이 초임인 저에게도 아주 귀한 가르침이 다가오고, 언젠가는 저도 그렇게 현지 사역자에게 제 사역을 위임하는 날을 소망해 봅니다.

## - 지금은 빈대와 전쟁중...



빈대에 물린  
유현숙 선생의  
목주변

러시아에 와서 처음으로 얻은 곳이 지금의 집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집에서 하나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빈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자는 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서, 유현숙 선생을 물었습니다. 저희는 유현숙 선생을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고, 그냥 집먼지 진드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저도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집소독을 부탁드렸습니다. 집 전체를 소독을 했음에도 계속 나왔고, 어느 날부터 검은 벌레가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유현숙 선생이 몸이 좋지 않아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죽인 벌레를 한국에 가져가서 물어보니 빈대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약도 사와서 뿌려보았고, 유튜브에서 본 민간요법도 사용해 보았지만, 퇴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2~3정도는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와 유현숙 선생은 많이 물고, 자녀들은 별로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고 싶지만 이곳 사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곳은 주인이 거주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동안은 빈대가 나오는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잡힌  
빈대들!!

## - 다시 학교로...

여름 방학이 시작되고, 언어공부를 위해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집사람이 몸이 좋지 않아서,



이번 학기 함께 하는 학우들

홀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3주 정도 홀로 아이들을 육아를 해야 했습니다. 낯선 경험이었지만, 집사람을 고마움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육아 때문에 과외는 잠시 쉬었는데, 아내가 돌아온 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학교에 개강이 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학업과 과외를 병행하며,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중국인 3명과 우즈베크인 1명, 한국 선생님 두 분과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입니다. 언어에 지혜를 주시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 I. 기도제목

1. 늘 복음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삶으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새롭게 시작되는 학기에 최선을 다해서 러시아 공부를 하게 하시고, 언어의 진보가 있게 하소서.
3. 계속해서 벼룩에 물리고 있는 유현숙 선교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견딜 수 있게 하소서.
4. 11/1(월)~3일(수)까지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게 하시고, 러시아에서 자라난 학생들(나경, 정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